

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격려할 때, 그를 채찍질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를 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통해 상대방이 격려받는 경우가 있고, “나도 하루에 열두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참 약한 것 같아요.”라는 공감의 말을 통해 격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 사람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그를 격려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정답을 얘기해서 사람을 꾸짖어야 하는지, 아니면 약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분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용기고 어디까지가 만용인지,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타협인지 그 경계를 알기란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도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드고아 여인은 사랑만 강조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삼하 14:4)라는 일반적인 지혜의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위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결코 정의를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를 알기에 압살롬을 그리워하지만 불러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을 불러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올바른 정의를 실행하지 못했고 인정에 끌려 압살롬을 그냥 용서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다윗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문제 해결은 회피로 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워야 하는 왕의 신분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신분 사이에서 고민하던 다윗은 결국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보지 않는 회피의 방식을 취합니다. 회피는 가장 쉬운 선택이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과는 가장 먼 방법입니다.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되는 문제 위에 놓입니다.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 인간의 방식을 취하되 답을 찾지 못하면 회피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3월 8일(금) 저녁 8시 30분부터 15주 동안 군사반 훈련이 시작됩니다. 중직자들은 필수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❷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나바남전도회 주관으로 기관대항 윗놀이대회가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교재를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❸ 대심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셀리더께서는 대심방 희망 날짜를 정해서 강성찬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주 식당봉사 - 4셀 ▶ 다음주 식당봉사 - 7셀

◆ 2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3/8	군사반 훈련
3/24	종려주일
3/25~29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31	부활주일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사무장로 : 조태행 권일석
- 은퇴장로 : 장순산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